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7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5년 7월 27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다시 물려온다!

메르스 끝나자 다시 살아왔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 메르스 무능 사태 등으로 휘청대던 정권이 다시 공격의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파내면서 당 내부까지 장악했다. 메르스도 진정되고 있다. 이제 원했던 일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바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반기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하듯 김무성 대표는 연일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대를 댔다. 심지어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까지 내뱉고 있다.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결실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에 갖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준비하고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 ‘기간제, 파견제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이다. 24일에는 주요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불러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3월부터 민주노총의 투쟁에 밀려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24총파업, 7.15총파업, 7.22제조공동총파업으로 이어진 노동계의 거센 투쟁이 정권의 앞길을 막았다. 정부도 지금 시간이 급하다.

하반기 투쟁으로 종지부 찍자!

상반기투쟁은 우리의 승리였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정권도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이미 정권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저지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면서 국회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논의기구를 통해 정권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고,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 하반기 우리의 투쟁은 벌써 시작됐다.

피엘에이 또 임금체불!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하는 옛말이 딱 맞다. 피엘에이자본이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리해고 투쟁 이후 원활한 노사관계를 이어갈 것 처럼 하더니 또 돈 가지고 장난질을 하고 있다.

피엘에이 자본은 4월, 5월, 6월 50%씩 임금을 체불했다. 여기에 6월 상여금, 휴가비까지 밀렸고 7월에는 한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7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다. 심지어 체불임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조차 없다며 배째라는 식이다.

지난 3월 피엘에이지회는 정리해고를 철회시키며 현장에 복귀했다. 정리해고로 인해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복직 후 다시 살맛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런 조합원들의 노력을 깡그리 무시했다.

피엘에이자본은 조속히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2015년 교섭도 원만하게 마무리해야할 것이다. 조합원들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간다.

유성기업 유시영 처벌! 금속 총청권 결의대회

* 일시 : 7월 29일(수) 16시
* 장소 : 천안법원 앞

조합원 동지들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나마

마음편한 휴가 보내세요!